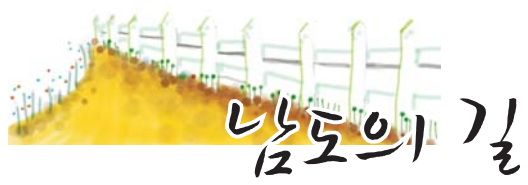




순창군 북흥면 봉덕리 덕흥마을을 지나는 옛길은 호젓하다. 내장사~백양사를 잇는 옛길은 도보여행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내장산·백암산 정기 품은곳

흙냄새 따라 한걸음 한걸음



호젓한 산길 단풍과 함께 유유자적 한나절 왜란역사 간직한 옛길엔 고찰의 가을 충만

<41>내장사~백양사 옛길



어느새 내장산은 붉은 빛깔에서 갈색 옷으로 갈아 입었다. 정읍시 내장동 동구리에서 바라본 내장산 줄기는 거대한 장벽을 연상시킨다. 탐방로 초입에 선 몇 그루의 단풍나무만이 가을의 훈장 같은 선명한 단풍 잎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

◇단풍명소를 잇는 옛길= 우리나라에서 단풍명소로 내장사와 백양사를 꼽는다. 두 절은 내장산과 백암산이라는 커다란 산을 사이에 두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호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갈 수도 있지만,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로로 좀더 쉽게 갈 수도 있다. 오래전부터 인근 마을사람들은 산길 대신 마을길을 이용해 두 절을 오갔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차츰 발길이 끊어지며 옛길은 묵혀지고 잊혀졌다.

이번 도보 길은 내장사와 백양사를 잇는 옛길이다.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에서 출발해 1km 거리의 동구리 기점을 거쳐 내장산마루를 넘는 유군치(留軍峙)~순창군 북흥면 화양리~봉덕리 덕흥마을~순창에서

백양사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곡두재(曲道峙) 구간이다. 크게 3차례 고개를 넘어야 하지만 마을과 마을을 잇는 평지 길로 걸기가 수월하다. 거리는 10.4km로 2시간 30분~4시간여가 소요된다. 단풍이 한창인 때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산기슭을 거슬러 오른다. 멸종위기 식물원을 지나자마자 급한 경사를 이룬 산길을 오르는 탓에 금세 숨이 가빠온다.

유군치는 임진왜란 당시 순창에 진을 치고 공격해오는 왜군을 승병장 희목대사가 이곳에서 머무르며 유인해 크게 물리친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유군치에서 10여분 내려서면 '대통령 공원'이라는 이름의 농원에 들어서게 된다.

17년전 봄날 갈나무·고로쇠나무를 심다 고단해 깜빡 잠에 빠진 주인장은 장군봉 산신령 품을 꾸었다. 이후 자식들이 큰 인물(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색적인 상호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김근호(68) 대표는 "수십 년 전만 해도 가을철이면

수백 명의 청춘남녀들이 가벼운 차림으로 도보여행을 하던 낭만적인 길이었다"며 "당시에는 하루에 유료수만 9상자(24개들이)나 팔 정도로 오가는 인파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주민 박종철(75)씨 역시 "내장사로 불공드리러 다닐 때 유군치를 넘곤 했다"며 "옛날에는 좁은 길이었는데 지금은 길이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유군치 대신 '누갱이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농원입구에 내장사 2km·백양사 6km 표지판이 놓여있다.

◇'내장산 둘레길' 개발로 지역활성화= 농원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길을 잡은 후 화양 관광농원과 화양마을 구간은 '화양로'라는 이름의 아스팔트 길이다. 화양 마을회관과 양림재를 지나 콘크리트 포장길을 벗어난 후 호젓한 우측 흙길로 20여분 걸으면 허름한 제각에 닿는다.

이따금 길가에 선 갈나무까지 밥을 먹는 여치를 볼 수 있다. 다시 제각 삼거리에서 오른쪽 산으로 방향을 잡아 간벌하는 소나무숲 사이로 난 황토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덕리마을에 내려서게 된다. 길목에서 배추수확을 하던 주민들에게 고개이름을 물었으나 외지에서 와서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백양사방향에서 걸어온다면 도화마을 출발점에서 우측으로 300여m 떨어진 개울 건너 파란색 지붕의 창고 뒤편으로 길이 이어진다. 길 초입에 자리한 소나무에 붉은 색 끈이 매여져 있어 쉽게 눈에 띈다.

창고를 지나 수확이 끝난 들판을 가로질러 덕흥마을 뒤편으로 들어서면 오미자를 재배하는 밭들이 많다. 덕흥마을에서 곡두재까지는 마을앞 농로를 따라 접근할 수도 있고, 마을 뒤편을 지난 호남정맥 노선을 따라 갈 수도 있다.

백양사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곡두재는 한때 버스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로 사용됐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곡두재에서 백양사 구간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백양사에서 천진암까지는 생태탐방이 허용되지만, 나머지 천진암~곡두재 구간은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년간 '동식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시대 기록인 '백양사 정토사 사적'에 따르면 각 진곡사(1270~1335)는 "청룡 곡두의 주맥이 (백암산) 아래에서 분파하니 삼암이 스스로 그 형상을 주인 삼으면 만민을 보호할 것이고, 맥을 끊어 큰길을 자연히 만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예언했다고 한다.

내장사~백양사 옛길은 크게 손대지 않고도 많은 도보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옛길은 내장산과 백암산을 우회해 정읍·정읍·순창 등 3개 시·군 지역을 지난다. 앞으로 장성군과 정읍시, 순창군이 손을 잡고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우고 '명품 둘레길'로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기섭·이동희기자 parks@kwangju.co.kr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결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 할인 및 조식뷔페 (30종) 무료제공

각종 연회 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년모임, 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 주차장은 오직 호텔 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 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점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뜯**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미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 kWh)일 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일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H.P 011-659-7001